Column

청년사업가들이 창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 확보 절실할 때

모빌리티 중심의 청년창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하성용 |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부회장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퍼스널모빌리티 분과위원장

창업은 단순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이다. 우리나라는 월드뱅크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에서 2018년부터 세계 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막론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시제작품을 만들어 상용화하기까지 수 만개에 달하는 규제를 넘어야 하는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5%에 불과하다. 기술과 경험, 자본이 없는 젊은 청년사업가들이 열정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창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 확보가 절실할 때다

취업보다 어려운 창업은 단순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21년 6월 현재 9.3%, 40만 2천명으로 평균 실업률(3.8%)의 2.5배에 달한다. 특히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들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게다가 유력한 경제연구소에서는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8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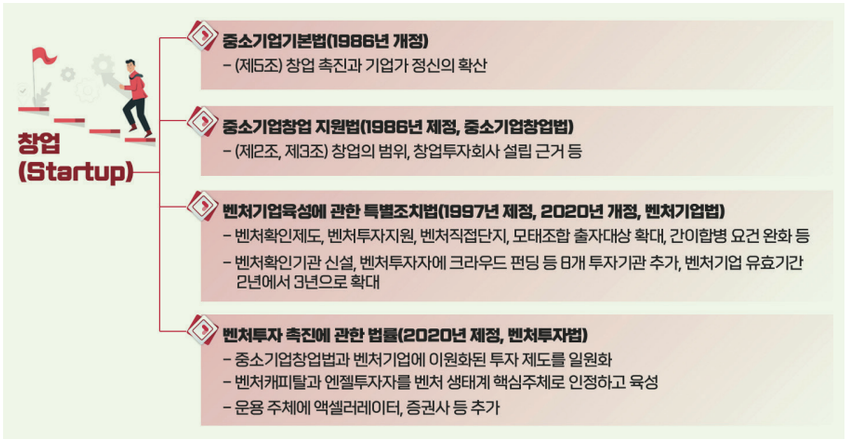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청년 실업률과 사회적 지수는 그 몇 배다.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 할 수 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미스매칭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치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다.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더욱 줄이고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요즘 창업한 지 5년 이하의 신생기업들이 전 세계 노동시장의 3.3%일 정도로 높은 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모빌리티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다품종 대량생산 체계에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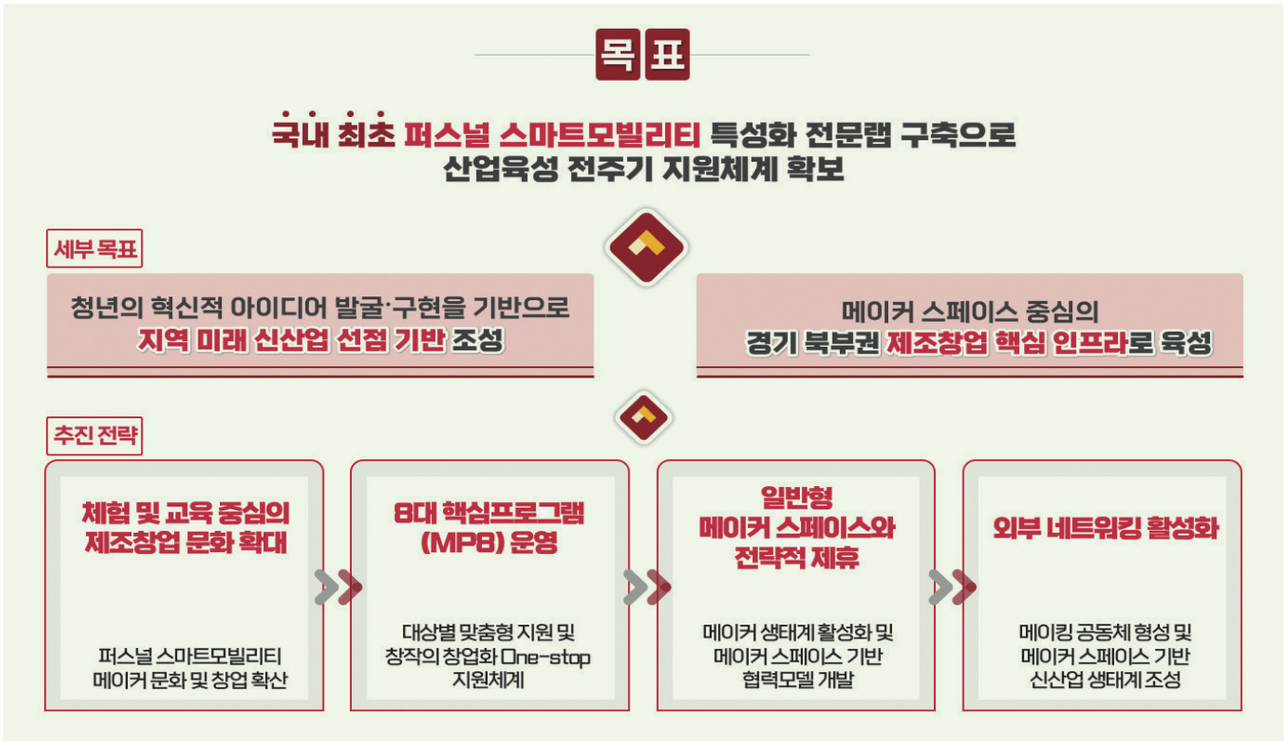
그런데 초소형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휠체어 등의 경우 중국산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저가의 제품경쟁력만이 아닌 정부의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의 미흡과 사회안전망의 미확보, 금융시장의 경쟁력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생존은 기술개발을 완성하기까지 '악마의 계곡', 제품개발을 완료할 때까지의 '죽음의 계곡', 이를 상용화해 성공하기까지 '다윗의 바다'로 표현할 수 있다. 창업시장은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이룬 기업가들의 평균 창업 연령은 33세에 불과하며, 혁신하는 역동성이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의 창업관련 시스템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월드뱅크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에서 2018년부터 세계 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정부



〈그림 1〉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정책



〈그림 2〉 스마트모빌리티 특성화 전문랩



〈그림 3〉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가 제정한 관련법으로 인해 제조업, 서비스업 막론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시제작품을 만들어 상용화하기까지 수 만개에 달하는 규제를 넘어야 하는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 정부에서는 규제총량제, 규제샌드박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지만 결론적으로 규제가 더욱 늘어가는 현실은 창업생태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필자의 경우 현재 청년창업과 기업을 위한 수많은 자문과 연구개발(R&D)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랩 프로그램과 지역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 창업기관 등 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해 창업대상 및 지원영역(일반인, 예비창업자, 창업자/창업기업, 커뮤니티)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에 따라 제작 신기술, 지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크지원, 기술지원, 메이커 전문교육 지원, 제조창업 전문교육 및 엑스퍼트 양성교육은 물론 참여기업 및 기관과 연계해 8대 핵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망을 통한 수출 상품화에 주력해 경기 북부 지역의 관련 분야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지원을 통해 조그만 희망을 걸어본다.

현재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5%에 불과하다. 기술과 경험, 자본이 없는 젊은 청년사업가들이 열정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창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 확보가 절실할 때다.

hsy1396@joongbu.ac.kr